

[에히메현] 보건복지부 삶의보람

추진국 육아지원과



[에히메 결혼지원센터 “아이무스비”의 빅데이터 활용]

[배경]

에히메현에서도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미혼화·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현민의 소리를 반영해 선행 대응 사례를 참고하면서 에히메 현에 맞는 결혼 지원 대책에 착수했습니다.

[사업 목적]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가 많은 가운데, 적당한 상대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신을 선택하는 자를 대상으로 좋은 파트너와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

[사업 개요]

2008년 11월에 개설한 “에히메 결혼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de아이 이벤트”라는 명칭의 맞선 이벤트 개최를 통한 결혼 지원입니다. 에히메 결혼지원센터는 독신자의 만남 및 커플 성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응원 기업(이벤트 주최 기업)을 널리 모집하는 동시에 커플 성사 및 교제를 돕는 자원 봉사 추진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현지 기업으로 조직된 일반사단법인 에히메현 법인회연합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종업원을 교육시킬 때에는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사업과 더불어 2011년부터 에히메 결혼지원센터를 통해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1대1 맞선사업 “아이무스비”를 시작했습니다.



- D “아이무스비” 이용 방법 (독신 남녀)
- ①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에히메 결혼지원센터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일시 예약
 - ②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에히메 결혼지원센터에 제출 (면담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회원증 교부)
 - ※아이무스비 회원 자격은 “결혼을 성실하게 희망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20세 이상의 독신자”이며 “에히메현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도 등록 가능”
 - ③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열람일시 예약 (45분/회)
 - ④ 에히메 결혼지원센터에서 태블릿 단말기를 통해 회원 프로필 열람. (조건 검색) (맞선 신청은 1회당 3인까지 가능)
 - ⑤ 상대가 승낙하면 “아이무스비” 서포터가 대면일시 및 장소(응원 기업) 조정
 - ⑥ 맞선 “아이무스비” 실시, 교제 의사 확

인

⑦ 교제 시작 후에도 정기적으로 아이무스비 서포터가 지원

[특징, 선진성]

에히메현은 “de아이 이벤트”와 “아이무스비”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이벤트 참가 동향, 교제 상대에게 요구하는 희망사항과 조건, 맞선 신청 상황, 신청을 받은 상대방의 반응 등과 같은 데이터가 연간 50만 건씩 축적돼 왔습니다. 2014년도에 이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서 분석한 결과, 만남에서 교제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남녀의 연령차,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건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일정한 경향이 있다고 판명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더 새로운 만남을 만들기 위해 국립정보학연구소 우노 다케야키 교수의 협력을 얻어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한 남성 A 씨가 한 여성 B 씨에게 맞선 신청을 한다.
- ② 과거 B 씨에게 맞선 신청한 남성군의 행동 데이터가 검출된다.
- ③ 동시에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A 씨가 속한 그룹을 선호하는 여성 그룹”도 마찬가지로 검출된다.
- ④ 검출 결과를 활용해 “같은 취향의 남성이 선택한 여성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A 씨가 속한 그룹을 선호하는 여성 그룹”에 속한 이용자를 시스템에 표시한다.
- ⑤ 이를 통해 A 씨는 성격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향적인 검색만으로는 열람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새로운 상대와 만날 수 있다.



(일러스트 설명은 본문 끝에 기재)

또한 빅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배제한 후 분석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1. “de아이 이벤트”에 대한 활용

“새로운 만남 예보”로서 시스템 이벤트 안내화면에 이용자가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독신자가 참가하는 이벤트에서 예를 들어 음식점 주체에서 아웃도어 활동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개최지를 선택하면 새로운 만남에 대한 확률이 달라진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2. “아이무스비”에 대한 활용

열람할 때 빅데이터 추천 상대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대1 맞선 상대를 찾을 때 연령이나 직업 등의 조건을 중시한 나머지 성격이 잘 맞는 상대를 놓치는 경우도 있으나 시스템상에 축적된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은 조합”에서 “이런 사람과도 만나 보세요”와 같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아이무스비 서포터 (자원봉사)

맞선 도우미인 “아이무스비 서포터”로는 이벤트를 돕고 있는 자원봉사 추진원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해 등록합니다.

한 쌍의 맞선에 한 명의 서포터가 동석해 만남부터 교제 및 결혼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효과]

첫째, 여성 회원의 맞선 신청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맞선을 신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나, 빅데이터의 추천과 대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있으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맞선 신청을 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맞선실시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대1 맞선의 신청 상대방이 맞선을 승낙할 확률은 13% 정도이지만 빅데이터가 추천한 상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29%에 달했습니다.

[과제 및 문제점과 대응]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매일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교제나 결혼으로 이어진 긍정적 데이터를 훨씬 웃도는 부정적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교제나 결혼을 성사시켜 나갈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맞선 시스템을 등록하거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가 먼 점과 등록자의 연령층이 비교적 높아 20대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개]

시정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맞선 시스템 이용 장소를 확충하는 동시에 타업종 교류 등과 같은 새로운 관점으로 장래 결혼을 희망하는 독신자가 참가하기 쉬운 새로운 만남의 장을 창출하는 등 결혼 지원에 대한 요구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역 전체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의 취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성을 고른 동성 그룹은 이러한 이성 그룹에게도 맞선 신청을 했으며 그 이성 그룹은 취향이 비슷한 이성 그룹으로 당신이 속한 그룹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추천의 2제곱”입니다.

23 자세한 내용은 에히메 결혼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빅데이터” 페이지에 게시된 “프로모션 동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 URL]

에히메 결혼지원센터

<https://www.msc-ehime.jp/>

에가오 육아 지원 사이트 “기라키라 내비”

<http://www.ehime-kirakira.com/>

[소관 연락처]

담당 소속: 보건복지부 삶의보람추진국
육아지원과

전화번호: +81-89-912-2413

이메일: kosodate@pref.ehime.lg.jp